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항상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노 아/임에스터/지현/대원>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고국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이제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듣습니다. 이곳 말레이시아도 이상기온으로 인해 저희가 사는 곳이나 사역지에도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 가뭄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랑으로 사역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저희가 큰아들 군입대로 인해 한국에 잠시 다녀왔는데 그동안 저희들의 빈자리를 GMC교단에서 설교자를 타이핑GMC교회에 보내 성도님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타이핑교회가 주일예배와 성경공부 그리고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이 은혜 주심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지난 6월 어버이 주일에는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음식을 나누는 섬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전도하고자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한 사람이 한 명씩 태신자를 작정하여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무더운 날씨이지만 꾸준히 예배에 나와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전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조금씩 말씀에 은혜를 받으며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헌금 기도도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7월이 들어서면서 성도들 중에 몸에 지병이 생겨서 입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장수술로, 신장결석으로, 눈 수술 등 환우들이 있으신데 건강들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온 성도들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의 열정들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화련중학교에서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한글 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교실엔 선풍기만 있고 창문도 유리만 올리고 내리는 창이라 습하고 더운 바람이 밀려오기에 땀을 흘리며 수업하고 있습니다. 어찌다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면 빗소리가 너무 커서 큰 소리로 수업을 해야 돼서 수업이 끝나면 목이 다 쉴 정도입니다. 학생들도 마지막에 있는 수업이라 날씨에 지쳐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수업에 나와서 기쁘게 함께 수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친밀한 관계가 이어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들이 주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화련중학교에서는 수요일

과 목요일에 한글 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교실엔 선풍기만 있고 창문도 유리만 올리고 내리는 창이라 습하고 더운 바람이 밀려오기에 땀을 흘리며 수업하고 있습니다. 어찌다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면 빗소리가 너무 커서 큰 소리로 수업을 해야 돼서 수업이 끝나면 목이 다 쉴 정도입니다. 학생들도 마지막에 있는 수업이라 날씨에 지쳐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수업에 나와서 기쁘게 함께 수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친밀한 관계가 이어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들이 주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인도에서는...>

인도는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물이 차서 길들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흥로고스 커뮤니티교회 앞에 있는 길도 종종 물에 잠겨서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뒷길로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월에는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푸라바카 목사님과 아이들이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에는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예배후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푸라바카 목사님은 가족들과 중국 국경에 가까운 나갈랜드주에 계신 사모님의 고향집을 방문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아주 먼 곳이라 가족들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푸라바카 목사님이 힌두교가 강성인 그곳에서 담대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루사 교회에서도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하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경학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임마누엘과 쌍끼뜨나 두 남매가 열심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지난달부터 성경신학교의 수업이 시작하였고, 쌍끼뜨나도 새학기가 시작하여 어머니를 돌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방과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말씀에 능력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모님이 항상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족들...>

큰 아들 지현이는 대구 5군지사에 자대배치를 받고 지난 6월에 첫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해서 무더운 날씨지만 위병소 근무를 하며 군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대원이도 방학을 하여 알바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_^ <주후 2024년 8월 5일>